



기아 오토랜드 광주, 희망 나눔캠페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1일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 및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작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역사회 대표기업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온도탑 첫 기부기업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김희준 기아 오토랜드 광주 경영지원실장이 기부금 1억54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올해 광주시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 금액은 50억7000만원으로, 이날 기아의 기부를 통해 사랑의 온도탑은 약 3도 올라갔다. 기부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고흥경찰, 노인대학서 정성치안 특강

고흥경찰이 지난달 30일 고흥읍 소재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노인대학에서 노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안전한 고흥을 위하여’ 주제로 특강했다. (사진)

올해 고흥에서 발생했던 보이스피싱과 교통사고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예방을 위해 자체 추진하는 시책과 전국 최초 출범한 고흥군·고흥경찰서 드론헤엄순찰대 등을 소개했다.

자체시책 중 하나인 빠꾸기 문안순찰은 경찰관이 1일 2개 마을회관(노인당)을 방문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다. 봄봄봄(돌봄, 지켜봄, 관심가져봄)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3심 프로젝트는 ‘조심·관심·합심’으로 고흥군,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고흥군노인회, 모범안전자회등 5개 유관기관이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다.

송민섭 기자



남경건설(주), 사랑의 연탄 1만장 기탁 ‘훈훈’

남경건설(주)(부회장 최정필)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 1만장(900만원 상당)을 올해로 9년째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광주 북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문인 북구청장, 남경건설(주) 최정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기탁한 연탄은 북구지역의 어려운 서민층 가정에 전달돼 따뜻한 겨울에 나기에 쓰일 예정이다.

남경그룹은 지역 중견건설사로 토목, 건축, 전기 등 건설 전 분야에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고, 특히 포장분야에

있어서는 광주·전남지역 업계 1위로 성장했다. 특히 친환경적인 기업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글로벌 선진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는 등 지역의 선도기업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탄 기부 외에도 장학금 기탁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최정필 남경건설(주) 부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감동을 주며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며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관리와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성장해 가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법무공단 전남동부,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지난 달 30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챔버홀에서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동부지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공단 직원, 지역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출소자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올해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되었다.

출소자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 유공자원 봉사자 16명에 이사장 표창, 지청장 표창, 전남도지사 표창, 여수시장 표창, 국회위원 표창이 수여됐으며 모범대상자 격려금 및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전달됐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챗 GPT 활용’ 교육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은 지난 달 23일·30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철학 지식 및 챗 GPT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최고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최고관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권(순천)과 서부권(목포)으로 나뉘 2회 진행됐으며 43명의 최고관리자가 참여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최고관리자 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전남도사회서비스아카데미를 통해 전남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직급, 직무, 특별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간재 기자



광주정보진흥원, 문화산업 투자설명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문화콘텐츠 기업 11곳을 대상으로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에서는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여건과 광주 콘텐츠 기업들을 소개했다. 또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 스튜디오게일, 캠프파이어애니웍스, 스튜디오버튼이 온·오프로 참여해 콘텐츠 IP를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콘텐츠사와 공동제작·유통 등을 논의했다.

스튜디오게일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지상파 전문 방송사인 RTV와 자사 애니메이션 IP 기반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경주 진흥원장은 “양 지역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동남아 시장진출과 인도네시아 기업의 광주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조선대병원, ‘2023 엔젤스어워드’ 최고상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최근 세계뇌졸중학회(World Stroke Organization, WSO)에서 제정하고 베링거인겔하임이 후원하는 2023년 엔젤스어워드(Angels Awards)에서 최고상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 (사진)

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엔젤어워드상은 2016년부터, 세계뇌졸중학회에서 운영하는 뇌졸중등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뇌졸중 센터병원들을 바탕으로, 참여 병원들의 뇌졸중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급성기 뇌졸중 치료와 입원 환자의 치료 질 관리를 잘 하는 병원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상을 해오고 있다.

안성환 조선대병원 뇌졸중센터장(신경과 교수)은 “우리지역의 뇌졸중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뉴진스, ‘MMA 2023’ 대상 2개 등 5관왕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 (사진)가 ‘2023 마마 어워즈’에 이어 ‘멜론 뮤직 어워드 2023’ (MMA 2023)도 휩쓸며 연말 시상식 싸움을 시작했다.

뉴진스는 2일 오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MMA2023’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베스트송’ (‘디토’) 등 대상 두 개를 포함 ‘베스트 그룹 여자’, ‘올해의 톱 10’, ‘밀리언스 톱 10’에 들면서 5관왕을 안았다.

뉴진스 헤인은 “저희가 데뷔한 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상들을 한 시상식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라면서 “늘 앞으로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고 했다. 민지는 “고마워

요 버니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뉴진스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니엘은 “저희 민희진 대표님 뿐만 아니라 어도어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다.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버니즈도 너무 고맙고 진짜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시 두 개의 대상을 차지한 ‘마마 어워즈’에선 수상 소감과 무대를 선보이지 않아 많은 음악팬들이 아쉬워했는데 이날 ‘MMA2023’에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찍은 미니 2집 ‘겟 업’에 실린 여섯곡 전국 무대를 선보이며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뉴시스

‘서울의 봄’, 개봉 12일만에 관객 400만명 돌파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2일 만에 4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3일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이날 오전 0시 14분 425만318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범죄도시3’ (누적 1068만2813명), ‘밀수’ (514만3103명)에 이어 단숨에 흥행 톱 3에 자리매김했다. ‘서울의 봄’은 개봉 후 줄곧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으며 개봉 4일째 100만, 6일째 200만, 10일

째 300만 관객을 연이어 돌파했다.

이 영화는 ‘비트’ (1997) ‘태양은 없다’ (1999) ‘아수라’ (2016) 등을 만든 김성수 감독 신작으로 1979년 12·12 사태를 소재로, 보안사령관 ‘전두광’ (황정민)이 이끄는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수도를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정우성)의 9시간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에는 배우 황정민·정우성·박해준·이성민·김성균·정만식 등이 출연했다.

이주영 기자